

# 83年度 우리나라 貿易政策의 方向

李 東 勳  
特許庁抗告審判所所長

\*編輯者 註：本稿는 지난 11月 10日 貿易會館 大會議室에서 韓國貿易研修院 주최로 개최된 「83年度 貿易政策 및 輸出戰略」 세미나 중 李 東勳 當時 商易局長 (現 特許庁抗告審判所所長)이 행한 講演 原稿를 근거로 하여 業界의 이해를 돕기 위해 再構成한 것이다.

그러나 講演 이후, 그 동안 政府에서 진행해 온 5次 5個年計劃의 修正補完 작업이 밝혀지고, 또한 일부 計劃이 新聞紙上에 발표되기도 하여 앞으로 多少 變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本稿에 나타나 있는 輸出 計劃, 伸張率 등 각종 數値에 대하여 확실한 修正을 가하지 못하고 掲載함을 양해하기 바란다 ..... (編輯者註)

## 1. 當面 課題

우리나라 經濟는 輸出을 필두로 하여 지난 20年 동안 지속적인 高度 成長을 누려왔다. 60年代에는 世界 經濟가 번영하는 가운데서 순조로운 外資 導入을 바탕으로 왕성한 企業 의욕과 政府 主導에 힘입어 急成長을 함으로써 工業化의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 위에서 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 時代로 들어가 工業 구조의 고도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2次에 걸친 石油波動, 先進諸國의 Inflation 방지를 위한 긴축 財政金融, 保護貿易主義 강화 등으로 인하여 世界 經濟는 景氣 침체를 면키 어려웠다. 이러한 중에서도 韓國 經濟는 中東에의 海外建設 輸出을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나 날이 갈수록 惡化되어 가는 世界 景氣 속에서 量的 成長에 치중한 결과로 나타난 國際競爭力의 취약 등으로 해서 80年代의 문턱에서 비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韓國 經濟의 活路는 오로지 産業의 質的 향상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강화와 혁신적인 企業 활동을 통한 輸出 확대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輸出 増大의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 貿易 政策의 방향을 점검해 보면서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금년도 우리나라 總輸出 計劃은 245億에서 250億弗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81年度의 209億 9,300만弗에 비해 16.7~19.1%가 伸張되는 것으로서 先進 各國이 한자리 숫자 이하의 미미한 成長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교해 볼 때 실로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表1에서와 같이 工業產品 전체는 81年度의 195億 800만弗에 대해 금년도는 233億 4,000만弗을 計劃(19.6% 增)하고 있다.

이중 重化學 製品은 119億 8,000만弗이 計劃되어 81年度의 95億 1,000만弗 對比 26.0%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다시 이를 細分한다면 機械類 製品이 32億 7,000만弗이 계획되어 22億 9,200만弗의 前年對比 42.7%, 電子電氣 製品은 32億弗로서 25億 4,300만弗의 前年對比 25.8%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특히 電子電氣 분야의 경우 10月末 현재 輸出이 不振하여 年末까지 큰 변화가 없는 이상 計劃을 달성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 1. 5次 5個年 計劃 期間中의 輸出計劃  
單位: 百萬弗

區 分	'81 實 績		'82		'86		平 內 增加率 (72~86)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總 計	20,993	100	24,500~ 25,000	100	53,000	100	20.3
農 水 產 物	1,485	7.1	1,660	6.6	2,640	5.0	12.2
工 產 品	19,508	92.9 (100)	23,340	93.4 (100)	50,360	95.0	20.9
(重化學製品)	9,510	(48.8)	11,980	(51.3)	29,470	(100)	25.4
機 械 類	2,292		3,270		10,600	(58.5)	35.8
電 子 電 氣	2,543		3,200		8,000		25.8
鐵 鋼 金 屬	3,324		4,050		7,710		18.3
化 學	1,351		1,460		3,160		18.5
(輕工業製品)	9,998	(51.3)	11,360	(48.7)	20,890	(41.5)	15.9
機 能 類	6,186		7,100		11,900		13.7
其 他	3,812		4,260		8,990		18.7

註: ( )內는 工產品基準 構成比일.

編輯者註: 政府의 修正補完 작업에 의해 變更이 예상됨.

한편 5次 5個年計劃이 종료되는 86年度의 輸出 계획은, 總輸出이 530億弗로서 82~86年間的 年평균 伸張率 20.3%의 高成長을 계속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동기간 중 工產品은 503億 6,000만弗의 輸出 目標가 책정되어 있어 年평균 20.9% 신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重化學 製品은 294億 7,000만弗로 年평균 25.4%의 비교적 높은 伸張이 기대되고 있다. 機械類 製品은 106億弗로 年평균 35.8% 신장이, 電子電氣 製品은 80億弗로서 25.8%의 신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計劃은 業體의 積極적인 協助와 순조로운 輸出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힘든 일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우리나라의 産業은 여러

가지 構造上의 문제를 안고 있어, 政府와 業界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째 輸出 구조가 脆弱하여 海外 市場의 여건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國際競爭力이 약한 데도 起因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內需 産業의 기반이 허약하여 輸出 구조를 弱化시키고 있다.

둘째는 重工業化率이 低位에 있는 점이다. 國家 産業의 根幹을 이루는 분야가 重工業임에도, 과거 우리나라는 經工業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輸出 실적을 기준으로 이를 비교해 본다면 工產品을 100으로 보았을 때 81年은 經工業 製品 51에 대하여 重工業 製品은 49의 비중이었는데, 금년 말에는 逆轉되어 49:51이 예상되고 있으며 86年度에는 41.5:58.5로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세째는 각 工業 부문간의 불균형 성장을 들 수 있다. 이는 投資의 備重과 輸入 誘發의 內需 産業 구조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네째는 中小企業이 脆弱한 점이다. 일부 大企業이 많은 系列會社를 거느리고 新規 投資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대다수의 中小企業은 資本의 영세로 인하여 신규 투자가 어렵고 積極적인 研究 開發이 용이치 않아 內外需面에서 競爭力이 약한 실정이다.

다섯째는 施設 投資의 不振이다. 資本확보가 힘들기도 하지만 國內外 景氣 자체의 不透明으로 인하여 業體의 適期 投資가 어렵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問題點의 하나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技術 水準이 낮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産業 발전의 출발이 歐美 諸國에 크게 뒤져 겨우 60年代 初부터 본격적인 産業 技術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積極적인 技術 개발 및 導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先進 各國의 技術 진보가 최근 10여년 사이에 각 産業 분야에서 이루어져 이제는 尖端 技術을 武器化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開發國의 계속적인 발전을 阻害하고 있음에도 큰 원인이 있다.

한편 政府와 관련 機關의 對 業體에 대한 支援制度上에도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輸出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制度에 置重해 온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改善되었으나, 70年代 초반까지의 支援制度는 輸出 활동 자체를 중요시한 일면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短期 低利 輸出金融(年利 6%) 直接稅 減免(法人稅 50%), 輸出用 原資材 關稅事前免除, 公共料金 割引制度, 輸出 獨點權制度, 輸出入 링크制度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經工業 製品 중심의 支援 체계가 문제시 되는데, 점차 重化學 製品 분야도 支援策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輸出 競爭 여건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表2 에서와 같이 韓國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 競爭條件의 國際 비교를 해보면, 그 조건 또한 유리한 입장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金利面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臺灣에 비해서도 優待金利는 0.25%, 輸出金融의 경우는 1.25%나 우리가 높으며 특히 日本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物價 上昇率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76년부터 80년까지의 數值를 보면, 日本이 5.9%, 싱가폴 7.8%, 香港 8.3%, 臺灣 8.9%에 비해 우리나라는 倍가 넘는 18.1%의 높은 폭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賃金의 경우도 현격한 차이를 示現하고 있다. 同期間 중 싱가포르이 7.8% 上昇된 데 이어 日本 8.3%, 香港 14.4%, 臺灣 18.0%, 우리나라는 30.8%를 기록하고 있다.

## 2. 政策 方向과 對策

우리나라의 貿易政策은 國內外的으로 難關을 눈앞에 두고 있다. 對外的인 것으로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 역시 世界經濟 展望이 불확실한 점과, GATT/MTN, MFA 등의 會議에 따른 措置와 각국의 保護貿易主義 강화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産業 구조의 취약과 技術 수준의 低位, 그리고 輸出 競爭 조건

의 不利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83年度 이후의 政策 방향은 輸出 구조의 高度化 및 內實化를 다지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1)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고, (2) 企業 자체의 競爭力을 향상시키며, (3) 輸出支援制度의 補強에 주력할 방침이다.

### 가. 産業 構造의 高度化

우리나라 産業 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하여, 機械·電子工業을 戰略産業으로 育成시키므로써 高附加價値 産業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機械工業의 競爭 産業化 計劃의 실현을 위해, 일반 汎用 機械 및 産業設備 部門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고, 精密機械 및 部品工業 部門을 새로운 競爭産業으로 육성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電子工業의 高度化 計劃을 착실히 전개시켜

部 門	現在의 水準	發展計劃('86)
半 導 體	○民生用 半導體 生産 (時計用 I.C) ○基礎素材 自給度: 15%	○小型컴퓨터用 半導體 生産(LSI) ○基礎素材 自給度提高 : 85%
컴 퓨 터	○組立生産 段階 ○CRT터미널 輸出開始 (82年 10萬臺計劃) ○一部 周辺機器 國產化	○미니컴퓨터 技術自給化: 國內모델 開發 ○마이크로컴퓨터의 輸出 ○周辺機器: 自給 및 輸出産業化
通信機器	○空間分割式(半電子式) ○組立生産 段階	○時分割式(全電子式) ○通信機器의 生産能力 擴充 ○通信機器部品の 自給化→80%
家電製品	○低價品 中心生産, 輸出 ○新製品開發初期段階 (VTR, 電子렌지)	○高價 新製品 開發促進 (多重放送TV)
重電機器	○低容量은 國產開發 完了 ○超高压 大容量은 開發初期段階	○超高压 大容量의 開發 輸出

輸出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이다. 즉 81年度 電子工業 부문 輸出이 家庭用機器 42%, 産業用機器 13%, 電子部品 45%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68年度에 가서는 家庭用機器 40%, 産業用機器 24%, 電子部品 36%로, 附加價値가 높은 産業用機器 부문의 比重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電子工業의 주요 분야를 86年度를 목표로 하여 다음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表 2. 重工業製品 輸出 計劃 單位: 億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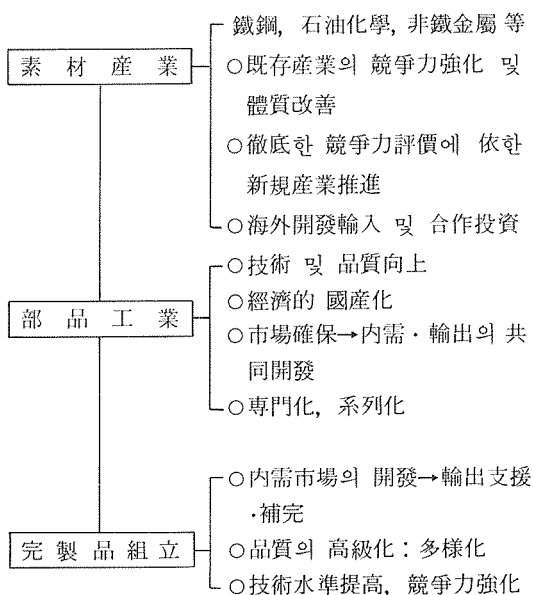
區 分	'81	'86	'82~'86 年平均增加率(%)
輸 出 總 額	210(100.0)	530(100.0)	20.3
重工業製品	81(38.7)	263(51.6)	26.6
鐵鋼·金屬	33(15.9)	77(14.5)	18.3
機 械 類	48(22.9)	186(35.1)	31.1
一般機械	7(3.3)	39(7.4)	41.0
電子電氣機器	25(11.9)	80(15.1)	25.8
輸送機械 (船舶包含)	16(7.6)	67(12.6)	33.2

註: ( )는 構成比, %

編輯者 註: 政府의 修正補完 작업에 의해 變更이 예상된다.

#### 나. 工業間의 均衡 발전

完成 組立品과 部品, 그리고 素材工業間의 不



均衡을 바로잡아 調和 있는 均衡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며, 輸入 誘發的인 工業 구조의 改善을 위해 輸出 附加價値의 提高에 힘쓸 계획이다.

#### 다. 中小企業의 育成

中小企業의 발전, 육성을 위해 中小企業 振興 長期計劃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는, 高度化 事業을 적극 추진하고, 技術의 向上을 기하고, 안정적인 事業活動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첫째, 高度化 事業 추진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의 近代化와 協同化 그리고 大企業과의 系列化를 活性化할 것이다.

둘째, 技術의 향상을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에 힘쓸 계획인데, 세부 사항으로는, 中小企業 振興公團의 技術 指導 사업을 강화시키는 한편 中小企業의 共通되는 脆弱 技術에 대한 개발 지원을 전개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鍍金, 鑄物, 熱處理, 治工具 등이다. 研修事業 확대의 일환으로 中小企業研修院을 開館시키고 本格的인 研修를 擴大할 계획이다.

셋째, 안정적인 事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中小企業 領域을 확보시켜 나아가갈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23個 特化業種을 확대하고 事業 調整法의 運用을 강화하는 외에도 團體 隨意契約 事業을 확대하기 위해 中小企業 製品 購買促進法을 적절하게 運用할 것이다.

#### 라. 産業 技術의 개발

하루가 다르게 급진보되고 있는 先進國의 産業 技術에 落後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 技術의 연구, 개발과 導入을 잘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신 先進 技術의 과감한 도입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技術 導入의 自由化를 추진해 나아가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技術 개발을 위한 金融 稅制上的 支援을 확대하고, 研究 開發 投資의 촉진을 위해 民間 研究所의 설치를 적극 장려할 것이다.

産業技術 情報의 신속한 공급을 기하기 위해 이미 發足된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의 活用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中小企業들이 접촉하기 힘들었던 國別 産業技術

市場 情報의 수집·분석 蓄積 및 보급을 원활히 하고, 商品別·國別 技術 수준 및 生産, 輸出 등 貿易 동향을 조사하며 國際競爭이 가능한 商品의 발굴, 弘報에 이바지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문제시되고 있는, 先進國의 技術 移轉 기피에 대한 對應策을 學界 및 業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講究할 방침인데, 우선 그 방안의 하나로 先進國 用役 會社와의 合作投資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長期的으로 比較 優位가 있는 核心 産業 분야에 대한 國策 研究事業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長期的인 안목으로 産業의 育成, 發展에 있어 根幹이 되는 技術人力의 養成, 보급도 꾸준히 전개시킬 계획이다.

#### (1) 企業의 競爭力 향상

우리나라 全企業의 競爭力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汎企業的인 生産性 향상 運動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인데, 장기적인 政策 課題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 經濟 안정화 및 産業 合理化로 生産性 향상의 基盤 조성
- 民間 企業의 자율적 推進 유도
- 生産性 향상 결과의 企業 및 勤勞者 歸屬

이의 효과적인 전개와 結實을 위하여 政府는 물론 企業 스스로도 다음 方針에 能動的으로 대처해야겠다.

#### 가. 1社 1技術의 開發

- 導入 技術의 消化 改良
- 최신 技術의 도입

#### 나. 製品의 品質 향상

- 全社的인 品質管理運動 전개

#### 다. 經營 合理化

- 企業의 財務 구조 개선
- 原價節減 노력의 강화

#### 라. 工場새마을運動의 持續化

#### (2) 通商 活動의 강화

가. 地域別 特性에 따른 通商 活動의 전개  
通商 活動의 효과 提高를 위해 앞으로는 대상 地域에 따른 여러 가지 特性을 고려하여 通商

활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美·日·獨 등 先進國에 대해서는 균형된 通商 增大를 도모하여 貿易 障壁을 완화시켜야겠다. 우리나라와 경쟁의 위치에 있는 臺灣, 싱가포르 등 中進國에 대해서는 比較 優位에 있는 産業이나 製品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 利益을 위한 協調 체제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뒤를 쫓고 있는 대다수의 後進國에는 通商, 資本, 技術協力의 종합 추진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協力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타 특수 지역에 대해서는, 經濟의 自由化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고 MTN, MFA, UNCTAD, ESCAP 등 國際 機構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참여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입장을 강화시켜 나아가갈 것이다.

#### 나. 産業 협력에 의한 通商 증대

한편 通商의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産業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갈 방침인바, 現地 合作投資를 전개하거나 資源 개발을 꾀하여야겠다. 後發 開途國의 經濟開發計劃에 적극 참여해서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다.

#### 다. 綜合的 수단에 의한 對外 교섭과 輸出 增大

또한 貿易 자체가 각종 産業과 技術의 綜合體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原電, 電話交換 시설 등 大型 購買 및 投資事業의 發注와 연결, 추진하고, 對外 經濟 協力の 調整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 라. KOTRA 海外 組織網의 再配置

貿易 振興을 위해 세계 도처에 散在해 있는 KOTRA의 海外 貿易館의 組織網을 活性化시켜, 先進國에 대한 기존 市場은 市場 情報 機能 중심으로 業務를 강화하고, 後進國 未開拓 市場에 대해서는 市場 개척 및 확대, 合作投資를 병행해 갈 방침이다.

#### 마. 輸入規制에 대한 能動的 대처

날로 강화되는 세계 각국의 輸入規制에 事前 對備하는 자세를 강화해야겠다. 그러므로 海外 市場 情報의 신속한 蒐集 활용, 相對國의 政策 立案 과정에서의 사전 對處, 질서있는 輸出 증

대 도모를 위한 유망 商品과 市場에 대한 管理 철저를 기해야겠다. 아울러 국내에 있는 각 經濟團體의 對外 活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 (3) 綜合商社의 機能 강화

輸出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綜合商社의 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商社別 專門化를 유도하고, 海外 진출의 窓口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해 나아갈 방침이다. 資源 개발, 産業 設備 輸出, 直·合作 投資, 三國間 去來 등이 이에 해당한다.

情報 기능의 강화를 위해 해외 조직망을 계속 增設하고, 輸入 기능도 강화함은 물론 技術者 販賣要員을 핵심으로 한 販賣 專門家의 養成에도 주력할 방침이나, 이는 각 綜合商社와 業體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政府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망되고 있다.

참고로 韓·日간의 綜合商社 기능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 綜合商社 機能의 韓·日間比較

單位: 比重, %

區 分	韓國('81)	日本('78)
輸 出	82.1	20.9
輸 入	14.2	19.0
三國間去來	0.2	9.4
內 需	3.5	50.7

#### ○ 財務狀況

— 利益率(當期純利益 / 總賣出)

$$\frac{77}{1.46\%} \rightarrow \frac{81}{0.77\%}$$

— 負債比率(負債 / 資本金):

$$447\% \rightarrow 804\%$$

### (4) 輸入 自由化의 合理的 추진

세계 貿易의 큰 추세로 볼 수 있는 것은, 經濟 발전이 급진전되고 輸出高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 輸入 自由化를 병행 하라는 各國 및 國際 機構의 압력 증대 현상이다. 先進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점차 輸入 自由化를 추진해 가기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自國 産業의 보호가 前提되는 만큼 輸

入 自由化의 추진은 관련 政策과 調和를 이루고 有機的인 관계가 先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國家 産業의 長短期 政策, 國際收支 상황, 通商 政策에서 競爭力이 提高될 수 있어야 한다.

점진적인 輸入 自由化 정책은 불가피 하므로 業界는 미리부터 對備 자세를 가다듬지 않고서는 안 된다. 금년도 輸入 自由化率은 76.6% 수준이 될 것이다.

政府는 業界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輸入 自由化 豫示制를 실시할 것이다. 豫示制는 國際競爭力 倍養에 자극이 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輸入管理制度의 탄력적 運用을 위해, 彈力關稅制度和 輸入 監視 및 輸入先 多邊化制度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不要不急한 製 品의 輸入은 계속 억제해 갈 방침이다.

### (5) 輸出 支援制度의 補強

#### 가. 金融面

金融 지원 條件을 競爭國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력하겠다. 예를 들면 지원 金利, 融資額, 融資 기간 등이다.

그리고 重工業 제품 의 輸出 지원을 강화해 갈 것이다. 現行 制度는 經工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融資 기간은 90일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製造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重工業을 중심으로 國家 産業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끌어 나갈 것이다.

#### 나. 稅制面

內國稅측에서는 각종 準備金制度의 지속적인 지원을 펴 나가도록 할 계획이나, 海外市場開拓 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海外投資損失準備金, 價格變動準備金 등이 해당된다.

關稅面으로도 輸出 지원을 위해, 徵收猶予制度를 존속시키고 還給業務를 계속 간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關稅率의 점진적인 引下 및 單純化를 기하고 保稅工場制度의 活用을 확대할 것이다.

#### 다. 外換面

換率의 안정적인 流動化 및 實勢를 반영하며, 外換管理의 점진적인 自由化를 추진해 가면서

業體의 부담 감소를 위해 각종 手數料를 인정할 계획으로 있다.

#### 라. 延拂輸出 金融의 확보

장기적인 延拂輸出의 계획과 소요 資金은 81年度の 경우, 延拂輸出이 6億弗이었으나(重工業 輸出은 81億弗) 86年度에는 重工業 輸出 274億弗에 대하여 延拂輸出은 40億弗로 계획되어 있어 延拂輸出의 비중을 81年の 7.4%에서 86년에는 14.6%로 提高시키고, 延拂輸出 支援 資金은 81年の 7,464 億원에서 86년에는 2兆 4,500億원으로 대폭 增額시킬 계획이다.

同 資金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政府 出資를 확대하고 國民投資基金 이용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 마. 輸出保險制度的 확충

輸出保險制度的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輸出保險基金의 확대 造成이 절실하므로, 基金 조성의 목표를 1,000億원으로 設定하였는데, 年度別 계획은 다음과 같다.

單位：億圓

區 分	'82까지	'83	'84	'85	'86
政府出捐	186	10	50	50	50
利益積立金	126	79	38	63	85
累 計	212	401	489	602	737

아울러 輸出保險 活用率의 提高에도 주력하여 81年の 6.6%를 82년에는 13%, 5次 5個年計劃이 마무리되는 86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輸出保險制度的 확충을 위하여, 包括保險制度를 확대 실시할 것이며, 輸出保險法 제37條에 의거한 輸出保險會社의 設立을 추진할 계획이다. 同 會社의 주요 業務는 輸出保險의 專擔 운영과 輸出保險基金의 관리가 될 것이다.

#### 바. 貿易 管理 行政의 能率化

輸出 확대에 따른 貿易 管理 行政의 간소화와 能率化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함께 貿易業의 점진적인 自由化가 추진되고 있고, 貿易

節次의 簡素化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事前 規制 위주의 貿易 節次가 事後審査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한편 類似중복된 節次의 統廢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實效性 없는 節次의 철폐와 權限의 대폭적인 下部 機關에 대한 委任 확대, 그리고 업무의 電算化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3. 結 論

이상의 貿易 政策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은 86年度の 500億弗臺 輸出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産業의 國際競爭力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輸出 증대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輸出 구조의 高度化를 추진하는 일면 內實化를 다져 나가야 한다. 高度化를 이루고 內實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産業의 競爭力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즉, 高附加價値産業의 中점 육성과 經工業 제품의 品質 高級化를 촉진시키고 각 工業간의 均衡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産業 技術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企業 자체의 競爭力을 향상시켜야 하므로, 汎企業의 生産性 향상 運動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通商 활동의 強化를 위해, 특성 있는 通商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물론 産業 협력에 의한 通商 증대를 추진하는 한편 海外 組織網의 強化, 輸入規制에의 能動的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輸出支援制度를 보강하여, 競爭國 수준의 輸出 支援을 유지토록 노력하며, 金融·稅制·外換面의 制度 강화와 輸出保險制度的 확충, 貿易管理 行政의 能率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政府와 業界 및 관련 機關은 86年度の 500億弗臺 輸出 目標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輸出 구조의 高度화와 內實化를 공동 努力으로 성취시켜야 할 것이다.